

광주시, 청년창업자 등지 마련 돕는다

도시공사·테크노파크 업무협약

28일까지 용봉동 입주자 모집

월 임대료 20만원선 복합 공간

광주시가 지난 19일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청년창업자 거주지원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은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주택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주거와 사무 복합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창업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입주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창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시가 청년들에게 창업 꿈터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이다. 오는 28일까지 첫 입주 청년(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공급 규모는 개인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전용면적 53~61㎡) 7호다. 지원주택에는

입주 기업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공간과 교류·소통이 가능한 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다. 또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소득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창업지원주택 임대보증금은 평균 400만원선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 내외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연장 심사를 거쳐 1회(2년)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I-Plex광주 청년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핵심시설인 I-Plex는 청년창업기업에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아이디어와 실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창업지원주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광산구 첨단산업단지 내에 청년창업지원주택 1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창업가들이 자존감을 갖고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유망한 청년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 100억원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청년창업특례보증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행복주택 찾은 건축학도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9일 호남대 건축학과 8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광주역 행복주택건설현장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교육·실태조사...광주시 인권사업 13개 추진

광주시가 지역 인권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인권침해·차별 개선, 인권문화 확산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15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사업예산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사업은 광주정신과 인권감수성 심화를 위한 시민교육, 탈시설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사업을 비롯해 13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늘따순풍 암마을 풍두레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강사 아카데미를 운영해 장기적으로 인권교육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니버설문화원은 외국인 대학생 인권 실태조사·증진의 하나로 외국인 대학생 전용 온라인 인권 상담창구 운영, 외국인 재학생에 대한 인권상담 및 실태

조사,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조사, 내국인고 외국인 대학생이 함께하는 인권공감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에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기획강좌를 “혐오표현, ‘자유’인가 ‘범죄’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생활임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대상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사업에 따라 각각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모두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는 12월 10일을 전후로 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에는 추진성과에 대한 시민보고회도 열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돌봄이웃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수질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우 등 돌봄이웃이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760여 곳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가운데 수질검사를 신청한 시설에 찾아가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 등을 채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채수 작업은 4월2일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전화(062-613-7601~7604)로 하면 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을 진단하고 필터 교체, 청소 등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잘 준비합니다

최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대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 제한적 허용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20일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일부 전기자전거의자전거도로로 통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22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

아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2일 이전에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자전거라도 제조사에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확인받은 자전거만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확보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운행도 제한된다.

안전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bik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평생교육원, 시민교육·답사 참여 모집

광주시와 광주평생교육원이 오는 4월부터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과 찾아가는 광주알기답사에 참가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광주시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행복학습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인 이상의 시민이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형성, 광주정신과 문화예술 중 1개 주제를 선택해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광주알기답사는 시민 10인 이상(소외계층 우선지원)이 신청 가능하며, 광주정신 탐방, 양림동문화 탐방, 5·18 사

적지 탐방, 시·문학 탐방, 무등산 탐방, 문화예술 탐방 등 총 6개 코스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시민교육 나눔강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지역의 역사, 예술, 유적, 인물 등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계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생활속 민주·인권을 실천하는 통합형 광주 시민교육 특화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 및 광주알기답사 참여방법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팩스(062-941-5220) 및 이메일(ysko@gie.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인생다모작팀 담당자(600-52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산구, 959개 시설 안전 합동 점검

이성수 구청장 권한대행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광산구 이성수 구청장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는 오는 4월 1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2018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이성수 구청장 권한대행이 직접 959개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도산동의 아파트 신축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15일과 16일 연이어 관내 위험 시설 등의 안전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이성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합동 점검을 위해 사전에 ▲건축 ▲생활·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으로 구분해 현장 실태 점검 일정을 잡았다.

또한 점검 항목도 구조 안전성, 관리 상태, 비상시 조치계획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상정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민간의 창조적인 안전확보 활동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까지 파악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 권한대행은 “안전한 광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 실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나주, 2층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급매 - ~~8200만원~~ → 6200만원

(2018년 3월 31일까지)

■ 문의. 010-3605-5000